

OCTOBER
2018

10
열왕기하

풍성한 삶



본 교재는 날마다 솟는 샘물 2017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포어로도 번역되어 동시에 사용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은 어떠했는가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그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도자가 재임 기간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과 같은 시대의 남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는가'였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왕들의 역사(15~16장)

남유다의 열 번째 왕 아사랴(웃시아)는 52년간 유다를 통치하며 안보, 외교,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대하 26:6~15). 하지만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로 정리됩니다(15:3~4). 결국 그는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함에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삶을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15:5).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평가 기준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스가라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되고(15:8, 10),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 1개월 만에 살해됩니다(15:13~14). 므나헴의 재위 기간은 10년이었지만 그는 앗수르의 공격을

받자 부자의 재물을 강탈해 앗수르에 바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이어 갑니다(15:17~22).

므나헴의 뒤를 이은 브가히야도 베가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 외에는 별다른 업적이 없습니다(15:23~26). 베가는 재위 시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스라엘 주요 지역을 점령당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는 일을 당했으며, 자신은 호세아의 반역에 목숨을 잃습니다(15:27~30).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은 반역과 죽음으로 얼룩졌는데, 이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5:9, 18, 24, 28). 이러한 역사를 통해 죄의 결과는 심판이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가 재위 2년에 유다 왕으로 등극한 요담도 아사랴와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15:37).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는 아버지

보다 더 악한 왕으로 인신제사까지 행합니다(16:3). 또한 아람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하자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성전과 왕궁 공간에 있는 은금을 바쳐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16:6~9).

아하스의 이런 외교로 유다는 위기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앗수르의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앗수르에서 사용하는 제단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만들게 했으며, 낯 제단의 위치를 변경하고 제사 원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죄를 범합니다(16:10~14).

위기를 모면하고자 앗수르의 힘을 빌린 대가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앗수르의 힘과 권력을 곁에 둔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17장)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등극합니다(15:30). 열왕기 저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그전의 다른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앗수르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소를 찾았고, 그 결과 앗수르의 보복으로 감옥에 갇

히고 맙니다(17:4).

이후 앗수르는 사마리아로 올라가 3년간 그곳을 에워싼 후 결국에는 그곳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끌고 갔습니다(17:5~6).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른 신을 섬기며 악을 일삼아 결국 패망합니다(17:7~23).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곳으로 흩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해 그 땅에 자연스럽게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정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이 같은 행위의 최후를 보여 주셨지만(17:25), 각 민족은 자신들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 문화로 그 땅의 거룩함을 말살해 갔습니다(17:29~3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합된 문화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다음 세대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믿음을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18~20장)

열왕기 저자의 히스기야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입니다(18:3).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해 계명을 온전히 지켰던 자였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18:6~7).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도 산헤립의 공격을 받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자신이 가진 은과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앗수르 왕에게 내줍니다(18:14~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앗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를 치게 합니다(18:17).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유다 땅에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며 유다 말로 외쳐 유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동시에 내분을 유도합니다(18:25~28). 그들은 또한 앗수르 왕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고, 여호와도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다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18:33~35).

이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18:36). 이에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18:37).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것을 결단하고, 신하들을 이사야에

게 보내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19:4). 이에 이사야는 랍사게의 심판을 예언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19:6~7).

앗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결코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고 협박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 놓고 기도합니다(19:14).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천하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 것이라고 호소합니다(19:15~19).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위해 2년간 곡식을 주실 것과 앗수르 군대가 패배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19:29, 32~33). 그 결과 앗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고, 산헤립은 자신이 섬기던 신전에서 살해됩니다(19:35~37).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예언을 듣습니다(20:1).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20:2~3).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인생을 더 허락하셨고, 그가 요구한 징표에도 응답하셔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20:8~11).

이후 히스기야는 병문안을 온 바벨

론의 사자들에게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 및 군기고와 창고 등 모든 주
 요 시설들을 보여 주는 실수를 저
 지르고 맙니다(20:12~13). 이로 인
 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20:16~18).

그러나 이런 참담한 소식에도 히스
 기야는 자신의 생애 동안만 평안하
 면 됐다며 자신의 목숨을 위해 기
 도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20:19). 이처럼 때로는 은
 혜를 받은 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잘
 못을 범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나
 약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
 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평가(21장)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우
 상 숭배와 악한 행위를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는 성전에 우상의 제단
 을 쌓았고(21:4~7), 백성도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
 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
 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21:10~11).

므낫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아몬에
 대해서는 ‘므낫세의 행함같이’라는
 말로 그 역시 어떠했는지를 짐작하
 게 합니다(21:20). 이처럼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악으로
 부터 벗어난 길만이 하나님께서 원
 하시는 길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며,
 산당에 놓인 우상들을 완전히 청산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
 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
 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직을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
 히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 23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사사 제십오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사십일 년 간 다스렸으며
- 27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 었더라
- 24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 28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2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 29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26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에 동참하기

열왕기하 14:23~29

내용관찰

여로보암 2세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 41년간 통치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로부터 떠나지 못했고,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을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루게 하셨는데, 그는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루게 하셨다.

연구와 묵상

1.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영토적 관점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 최대의 번영을 이룬다. 이는 여로보암의 능력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여로보암 2세 때 보여 주셨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을 보살피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여전히 선조들이 행한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느낀 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왕들에게 외세의 침략과 같은 어려움을 주셨는데, 여로보암 시대에는 긍휼을 부어 주셔서 과거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다. 결국 여로보암의 영화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은 내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나 역시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회개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에 동참하며, 긍휼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다.

결단과 적용

1.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번 주에 전화해서 안부 인사를 하겠다.
2.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날마다 심비를 일기에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함에 대해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다.

-차혜경 집사

내용관찰

1.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23~24절)
2.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한 이스라엘 영토는 어느 지역입니까?(25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왕과 백성의 고통까지 돌아보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오늘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북쪽에 있는 하맛 입구에서 남쪽의 아라바 바다(사해)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십니다(25절). 이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였지만 이후 아람에게 빼앗겨(13:3~7)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에게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저지르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24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고통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26~2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방기도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칠 년에 유다 왕 아사랴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 2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육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 3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 4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 5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 6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7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1. 아사랴 왕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까?(2절)
2. 오랜 재위 기간에 아사랴가 한 일은 무엇이며,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3~5절)

연구와 묵상

3.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유다의 열 번째 왕 아사랴(웃시아)는 무려 52년간이나 유다를 통치합니다(2절). 긴 통치 기간에 아사랴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을 강화했으며, 국내 산업을 장려해 경제적 부흥도 이룹니다(대하 26:6~15). 그러나 놀랍게도 열왕기 기자는 아사랴의 많은 업적을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환자가 되게 한 사실만을 간략히 기록합니다(5절). 이는 아사랴의 업적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치신 이유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오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대하 26:16~19). 그뿐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는 문제(4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많은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 8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삼십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 9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지라
- 10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11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 12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사 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 13 유다 왕 웃시아 제삼십구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 14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15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 16 그 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딤퓌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 밴 부녀를 갈랐더라

내용관찰

1. 스가랴 이후 이스라엘 왕위 계승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10, 14절)
2.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가랴, 살룸, 므나헴이 한 일은 각각 무엇입니까?
(9~10, 16절)

연구와 묵상

3.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린 후 이스라엘 왕정이 잦은 모반과 왕위 교체로 매우 불안정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파멸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삶의 안정감을 무엇에서 찾습니까? 삶의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됨으로써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8~10절). 이는 예후에게 약속된 말씀(참조 왕하 10:30)이 살룸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12절). 그리고 스가랴 이후 이스라엘은 급격히 불안정해집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모반해 왕위에 오른 것처럼, 살룸 자신도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13~14절). 이처럼 예후 왕조 이후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30년 사이에 다섯 번이나 왕이 교체되는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후 왕조가 95년 동안 다섯 명의 왕에 의해 비교적 안정된 시기를 누렸던 이유는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금 내게 주어진 안정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만일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골방기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안정을 누리게 하소서.

- 17 유다 왕 아사랴 제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십 년 간 다스리며
- 18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 19 앓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 손을 굳게 세우고자 하여
- 20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앓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앓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 21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22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23 유다의 왕 아사랴 제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간 다스리며
- 24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 25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오십 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 26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내용관찰

1. 므나헴은 앓수르 왕 불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합니까?(19~20절)
2. 므나헴과 브가히야의 죄는 무엇이며, 이들의 최후는 어떠합니까?(18, 22, 24~25절)

연구와 묵상

3. 므나헴의 장기 집권을 통한 왕권 안정이 허상에 불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집권 2년 만에 반역으로 죽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불의한 방법이나 헛된 것으로 내 삶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안정된 정권을 유지한 므나헴은 모반과 살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말기 역사에서 다소 예외적인 왕입니다. 므나헴 역시 살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10년이나 왕위를 유지했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음을 맞이합니다(17, 22절). 하지만 이런 안정은 아들 브가히야의 통치 2년 만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들 부자는 평생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18, 24절). 또한 므나헴은 백성에게서 은 1천 달란트를 착취하는 등 국내적으로는 공포 정치를 행하고(16, 20절) 대외적으로는 앓수르 왕 불에게 뇌물을 줘서 그 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19~20절). 이렇게 해서 내란도 없고 외적의 침입도 저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만든 평안은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거짓 위로자 '므나헴'(위로자)의 통치가 베가의 반역으로 브나히야 재위 2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을 행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골방기도 위로자 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소서.

- 27 유다의 왕 아사랴 제오십이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십년간 다스리며
- 2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옮겼더라
- 30 웃시야의 아들 요담 제이십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31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 32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이년에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 33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랴 사독의 딸이더라
- 34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 35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 36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37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 38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가는 어떤 왕이었습니까?(28절)
2. 열왕기 기자는 요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34~35절)

연구와 묵상

3. 요담이 베가보다 좋은 왕이었음에도 여호와께서 르신과 베가를 통해 유다를 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철저하게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남유다가 동일하게 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내게 남겨 둔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는 악한 왕의 전형입니다. 20년이나 왕좌에 있으면서 잘한 일이라고는 없었으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짭막한 평가가 끝입니다(28절). 결국 베가는 반란으로 죽습니다. 반면 남유다의 왕인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34절). 그러나 그에게도 유다의 뿌리 깊은 죄악이었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덧붙입니다(35절). 또한 요담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보내 유다를 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37절). 요담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왕국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요담을 바라보는 관점은 칭찬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불순종했던 베가와 적당히 순종했던 요담 둘 다 왕국이 패망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은 99퍼센트가 아닌, 100퍼센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방기도 내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들을 이길 힘을 허락하소서.

- 1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십칠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 2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육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 3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 4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 5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 6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 7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 8 아하스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앓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 9 앓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내용관찰

1. 아하스는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어떤 평가를 받은 왕입니까?(2~4절)
2. 아하스는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6~7절)

연구와 묵상

3.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권력에 머리를 숙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하스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중에서도 극도로 악한 왕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은 아들을 이방 신에게 번제로 바쳤다는 뜻입니다(3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인신제사를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인 요담 왕 시절부터 유다를 공격했던 베가와 르신을 막아 내기 위해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굽히면서 도움을 청합니다(7절).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을 경우,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존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앓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앓수르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하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일 내게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골방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따르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0 아하스 왕이 앓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쭙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하나님보다 디글랏 빌레셀 왕을 의식해 죄를 범한 아하스를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거나 같은지 솔직하게 나눠 봅니다.
2. 우리 가족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 누구를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
기도하기

우리 가족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아하스는 앗수르의 원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는 거기서 우상의 제단을 보고 유다 땅에도 똑같은 양식으로 제단을 만들도록 제사장 우리야에게 지시합니다(10절). 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지만 우리야는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고, 왕은 앞장서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12~16절).

그렇다면 아하스는 왜 이방 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을까요? 아하스는 앗수르의 도움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협공을 물리치자, 앗수르가 섬기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해준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도 이방 사람과 이방 신을 더 우선시해 우상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동일하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왕과 제사장이 사람을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사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지만, 우리야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실한 증인이라 평가받던 인물입니다(참조 사 8:2). 그랬던 그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 있는 정치권력 앞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바 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10 아하스 왕이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 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늦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는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 11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 13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 14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늦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
-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 17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늦바다를 늦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 18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 19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20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방 제단으로 성전을 더럽히다

열왕기하 16:10~20

내용관찰

앗수르의 힘을 빌려 아람의 공격을 물리친 아하스 왕은 감사의 표시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의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동일한 것을 만들도록 지시한다. 아하스는 새로운 제단 앞에서 아침과 저녁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등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의 성전 앞에 있던 낫 제단의 위치도 옮긴다. 또한 성전 기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낱실을 여호와 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연구와 묵상

1. 아하스 왕은 왜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그대로 만들도록 했나?
 - 아하스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방 신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또한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하자 앗수르 왕을 의지해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아하스는 아람 왕의 신들이 전장에서 아람을 도왔듯이 자신도 도울거라 생각해 다메섹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다.
2. 원래 성전 앞에 있던 낫 제단을 옮긴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던 각종 제사를 새로운 제단에서 올리도록 하고 원래 있던 낫 제단의 위치를 바꾼다.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이

는 낫 제단을 치운 것이다. 또한 '주께 여쭙 일에만' 낫 제단을 쓴다는 것은 이방의 점술방식으로 신의 뜻을 알기 위해 희생 동물의 내장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하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에서 떠났음을 보여 준다.

느낀 점

아하스는 적들이 에워쌀 때 이방나라와 이방 신을 의지해 여호와께 더욱 죄를 지었다. 이 일은 아하스가 평소에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평소에 하나님께 존중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기본'이 있을까? 고난이 왔을 때 아하스처럼 외부의 도움을 먼저 청하거나 다른 제단, 즉 내가 가진 자원(재물이나 시스템, 법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 매달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한다.

결단과 적용

1. 평소 실력이 위기 때 드러남을 기억하며 아침 7시에 통독과 큐티를 생활화하겠다.
2. 아이들 교육이나 개인적인 취미, 세상 모임이 '다른 제단'이 되지 않도록 주일예배와 토요일전새벽예배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겠다.

-김지현 집사

내용관찰

1. 아하스 왕이 앓수르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며, 거기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10절)
2. 새로 만든 제단으로 인해 원래 있던 낫 제단은 어떻게 됩니까?(14~15절)

연구와 묵상

3. 아하스가 이방 신의 제단을 모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리고 강대국의 방식을 따른 아하스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게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을 이겨 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앓수르까지 간 이유는 전쟁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앓수르에서 사용하는 제단을 보게 되는데(10절),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그 제단이 아하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만든 제단이 있었음에도 아하스가 그림까지 그려 보내 앓수르의 제단을 따라한 이유는 앓수르라는 강대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래 성전에 있던 낫 제단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 원칙은 아하스의 마음대로 바뀝니다(14~15, 17~18절). 분명히 세상의 다양한 방식에는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하스가 앓수르에서 받았던 유혹을 오늘날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골방기도 세상 온갖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 1 유다의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 간 다스리며
- 2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 3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 4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 5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삼 년간 에워쌌더라
- 6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내용관찰

1.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바꾼 외교 정책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4, 6절)
2.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7~8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멸망이라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 전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참조 15:30). 그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만큼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2절). 호세아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애굽의 왕 소만 믿고 해마다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앗수르의 보복으로 호세아는 감옥에 감금당하게 되고(3~4절), 이후 앗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점령당해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이 왕의 외교적 실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결과였다고 설명합니다(7~8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해결해야 할 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골방기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 9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 11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 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 15 여호와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 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13절)
2. 이스라엘의 악행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16~18절)

연구와 묵상

3.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소리를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오늘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인데(11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도 거리낌없이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복술과 사술을 행했습니다(12, 16~17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무시합니다(13~14절). 그들의 삶에 뿌리내린 이방 신들에 대한 흔적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버리게 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15,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골방기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 19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 2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 21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 23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내용관찰

1. 유다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19절)
2.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된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21~23절)

연구와 묵상

3.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죄로 물들이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죄는 무려 200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셔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20절).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이뤄진 것입니다(참조 왕상 14:16). 사실 이러한 예언은 그동안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전해졌기에(23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했다면 금홍함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도 여로보암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앗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맙니다(23절). 여로보암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쳤습니다(19절). 공동체의 지도자가 범한 죄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관계로 동역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나와 공동체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방기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 24 앓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 27 앓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 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 25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 28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벤엘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 26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앓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내용관찰

1. 앓수르 왕은 사마리아 성읍을 어떻게 통치합니까?(24절)
2.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죽임을 당하자 앓수르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27절)

연구와 묵상

3. 앓수르 왕이 사마리아 성읍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에도 그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내가 변화돼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앓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흩어 보내고, 앓수르의 또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합니다(24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물려 죽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십니다(25절). 이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일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삶의 안위와 형통을 위해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이끄십니다(27절). 이처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생명이 달린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이익에 맞춰서 살고 있다면 나 역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소서.

- 29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 30 바벨론 사람들은 숙곳브נות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 31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 32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 33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내용관찰

1.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신상을 어디에 뒀습니까?(29절)
2. 이방인들은 누구를 위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까?(32절)

연구와 묵상

3.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과 여호와를 함께 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자기 자신을 위해 온갖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은 각자의 신상을 가져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버려진 산당에 두고 그들의 방법대로 다양하게 섬깁니다(29절). 또한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도 섬깁니다(32절). 그뿐 아니라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웁니다(참조 왕상 12:31). 결국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33절). 당시 이방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있는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킬 여러 종류의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참조 출 15:2).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이방인들처럼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입니까?

골방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열왕기하 17:1~7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 유다의 왕 아하스 제십이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간 다스리며 2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 앗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삼 년간 에워쌌더라 6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애굽 왕을 의지한 호세아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나눠 봅시다.
2.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족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함께기도하기

죽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친앗수르 정책을 펼치던 호세아는 앗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죽자 앗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3~4절). 이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싼 끝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5절).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앗수르로 강제 이주됐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거주하는 치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6~7절).

그렇다면 호세아 왕은 왜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을까요? 이는 애굽의 힘을 의지해 앗수르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결국 앗수르 왕 살만에셀의 분노를 사게 돼 결과적으로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신들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때로는 앗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본인은 감옥에 갇히게 됐고, 백성은 나라 잃은 민족으로 낯선 땅에 끌려가는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가장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만일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신뢰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살 길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온전함을 더해 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 34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 35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 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 37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 38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 40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 41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두 마음을 품지 말자

열왕기하 17:34~41

내용관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에 새로 유입된 이방 민족 몇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자, 앗수르 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으로 이방 민족을 가르친다. 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큰 팔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여호와를 동일하게 섬겼으며, 자손대대로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이어 갔다.

연구와 묵상

1. 새로 유입된 민족들이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긴 이유는 무엇인가?
 -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서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 또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우상과 같이 섬겼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의 우상과 같이 둔 것뿐이었다.
2. 이스라엘의 율법과 계명을 여러 민족이 지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복을 받은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거짓된 우상을 함께 섬기는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여호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방 민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자신의 뜻을 보여 주신 것이다.

느낀 점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말씀을 나뉘어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됐고, 내가 과연 주님만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봤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 속에 무수한 우상들을 만드는 것을 본다. 특히 자녀의 교육과 장래를 위해 경험자들의 생각과 여러 방면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 우상의 형상만 없을 뿐, 세상 가치관과 사람을 우상 삼은 내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상을 섬긴 앗수르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회개하며,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다.

결단과 적용

1.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있는 후배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으며, 오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겠다.
2. 신명기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통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을 세우겠다.

-양수영 집사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35, 39절)
2.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조상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41절)

연구와 묵상

3. 나부터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복을 받은 민족인데, 분열된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열왕기가 기록된 당시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34절). 이처럼 신앙은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도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듣지 않았던 조상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답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40~41절).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에게 명하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39절)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또한 나부터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혹시 내가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내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게 하소서.

- 1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 2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 3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 4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 5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 6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 7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 8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 9 히스기야 왕 제사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칠년에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 10 삼 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육년이었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 11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 12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용관찰

1.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3~6절)
2. 하나님을 의지해 유다를 통치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7~8절)

연구와 묵상

3.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느낀 점

4.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형통했다는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행합니다(3절).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시하자 그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며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일깨웁니다(4절).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7절). 반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는 통치를 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수복했지만(8절), 호세아는 앗수르의 공격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9~10절).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호세아는 잘못된 인습을 극복하지 못해 나라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골방기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 13 히스기야 왕 제십사년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 14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던니 앗수르 왕이 곧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 15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 16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 17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잊 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발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 18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써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 19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나
- 20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 21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찢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용관찰

1.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13~16절)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산헤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7절)

연구와 묵상

3.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산헤립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수모를 겪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할 일은 무엇입니까?

앗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배반 소식(7~8)에 남유다를 침공했고,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점령합니다(13절). 앗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점령하고 있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항복하고, 산헤립이 요구한 대로 자신이 가진 은은 물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 그에게 바칩니다(14~16절). 하지만 앗수르 왕은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히스기야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17절). 사실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을 배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막상 산헤립의 막강한 위협에 맞닥뜨리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거대한 힘이 나를 짓누른다고 해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내 앞에 닥치는 위기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골방기도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 22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 23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주리라
- 24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나
- 25 내가 어찌 여호와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 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 26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 27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 28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 29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내용관찰

1. 랍사게는 유다 관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25절)

2. 랍사게의 조롱에 유다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26절)

연구와 묵상

3. 유다의 관리들이 랍사게에게 유다 말로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랍사게의 조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유다의 관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는 세상의 회유와 현실적 압박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더욱 겸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의 온전한 제사를 위해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했지만,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단을 조롱합니다(22절). 또한 랍사게는 유다의 종교 정책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이유가 여호와와의 뜻이라고까지 말합니다(25절). 게다가 유다 백성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당시 주요 외교 언어였던 아람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다 말로 외칩니다. 유다의 관리들은 이러한 교란 작전에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다 말이 아닌 아람 말로 말하도록 부탁하지만, 랍사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다 말로 크게 외칩니다(26~28절). 랍사게의 이 같은 조롱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보화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조롱이 거세더라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방기도 세상의 조롱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 30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 31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 32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 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 33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 34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 35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 36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 37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내용관찰

1. 랍사게가 유다 백성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3절)
2. 랍사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으며,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5~36절)

연구와 묵상

3.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같이 취급하며 모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유다 왕과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결단과 적용

5. 세상의 이치로 내 믿음이 판단받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향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건지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 말합니다(30~32절). 이는 앗수르 왕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신들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며, 하나님도 이방 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33~35절). 랍사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앗수르에 항복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31~32절). 사실 앗수르의 이러한 정책은 정복한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킨 후, 결혼을 통해 민족을 혼합함으로써 반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의해 모독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36절). 이처럼 세상의 위력 앞에 스스로가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가 두려워했던 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골방기도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해 세상이 주는 위협으로부터 당당히 승리하게 하소서.

-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 2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썩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 4 랍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 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 7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용관찰

1.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1절)
2.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며 무엇을 요청합니까?(2~4절)

연구와 묵상

3. 히스기야는 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느낀 점

4.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보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결단과 적용

5. 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동역자에게 부탁해야 할 긴급한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엘리아김, 셉나, 요아 등으로부터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1절). 이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는지를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알리며, 민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4절).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랍사게의 심판을 예언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 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올려 드려야 할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골방기도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앗수르 왕인 산헤립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신앙적 자세를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2. 어떤 때 두렵거나 불안했는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히스기야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10절). 당시 앗수르의 국력은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산헤립을 통해 전달된 이야기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 산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고 기도합니다(14~16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웠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둘째, 앗수르의 산헤립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발합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을 고발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며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16~17절). 아무리 세상의 강대국 왕이라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히스기야는 용기를 내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이방인의 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18절). 앗수르와 이방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고백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8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앓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립나로 가서 앓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립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 9 앓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 10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앓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 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 11 앓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 겠느냐
- 12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 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 13 하맛 왕과 아르밋 왕과 스발와 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 15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사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 17 여호와여 앓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 18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니 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

열왕기하 19:8~19

내용관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못하리라는 비방과 위협이 담긴 앗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는 그룹들 위에 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임을 고백한다. 또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듣고, 그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해 천하만국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연구와 묵상

1. 앗수르 왕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 히스기야는 이미 앗수르 왕의 위협 앞에서 막대한 조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 같다.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이 옳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2. 히스기야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기도한 까닭은 무엇인가?
- 나라의 위급한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 편지 속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비방을 본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결국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다.

느낀 점

위기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할 때, 얼마만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봤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해결법을 정한 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바라며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됐다.

대학과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두 딸이 있다. 치열하고 복잡한 교육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더라도 내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로 다가온다. 개인의 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킨 히스기야처럼,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 시선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겠다.

결단과 적용

1. 자녀의 입시를 위한 기도가 입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입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겠다.
2.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

- 정준아 집사

내용관찰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주장한 앓수르 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11~13절)
2.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15,19절)

연구와 묵상

3.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바탕으로 기도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세상의 비난이나 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으로 간구하기 위해 내가 결단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앓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고 협박합니다(10~13절).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다시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 놓고 기도합니다(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룹들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15, 19절).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이방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18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골방기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소서.

- 20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 21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 22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뻗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 23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 24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 25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 26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 27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 28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내용관찰

1.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꾸짖으신 산헤립의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22~24절)
2. 선지자는 산헤립의 업적을 어떻게 설명하며, 그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선포합니까?(25, 28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산헤립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보다 내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십니다(20절).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사실과 자신의 힘으로 레바논과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말한 교만함을 지적하시며(22~24절), 이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25절). 사실 산헤립의 교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 지금까지의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행했다는 주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산헤립의 교만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앗수르를 통한 유다와 다른 민족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므로 산헤립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잊는 순간,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영역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의 작은 부분도 온전히 주님께 내드리게 하소서.

- 29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 30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 31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 3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 33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시라
- 34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 35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 36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 37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1. 이사를 통해 유다 족속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0~31절)
2.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해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34~35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참조 삼하 7:16)

느낀 점

4.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에 신실하면서도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내가 당면한 어려움들 중 절박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도 세심하게 응답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절에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전쟁 중이라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스스로 자란 곡식들을 2년에 걸쳐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29절). 그뿐 아니라 앗수르 군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한 채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32~33절). 실제로 그 밤에 앗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죽임당합니다(35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참조 삼하 7:16)을 언급하시며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참조 요 16:24). 이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입니까?

골방기도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 2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 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 6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 7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내용관찰

1.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2.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5~6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참조 약 1:2~3)

느낀 점

4.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의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 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앗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18:13). 또한 히스기야는 선지자로부터 죽음에 관한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6절).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이 총 29년(18:2)이었으니, 죽을병으로 고생하다 고침받은 사건은 그의 왕위 14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도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합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시험과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죽음은 물론 다윗과의 약속을 위해 유다의 멸망도 유보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기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 내야 합니다(참조 약 1:2~3). 나는 현재 내게 주어진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골방기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삼 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 이까 하니
- 9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 10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내용관찰

1.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할 때 이사야가 제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8~9절)
2. 히스기야가 선택한 징표는 무엇이며, 그 요구는 어떻게 됐습니까?(10~11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히스기야에게 징표로 확신을 심어 주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기도한 이후 확신을 갖지 못해 불안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로 15년간 생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회복될 징조를 보여 달라고 말합니다(8절). 히스기야가 요청한 징표를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해해야 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십도 앞으로 나아가게도, 뒤로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참조 19:15). 하지만 히스기야의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징표가 있어야 믿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셨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기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지라
- 13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 15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 17 여호와와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 18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 20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21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1.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13, 15절)
2.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17~19절)

연구와 묵상

3.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가 이중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당대에 심판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히스기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나를 방심하게 만드는 연약함이나 자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바로잡고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자신을 병문안 온 사실에 고무돼 나라의 살림살이와 병력에 관한 기밀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13, 15절). 이 일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후손들은 환관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17~18절).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전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의 반응을 보입니다(19절). 물론 당대에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견해로는 히스기야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로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의 징표도 확인해 심리적으로 방심한 상태에서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거리낌없이 공개하는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항상 말씀을 좇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굴방기도 내 연약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성경읽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 2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4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6 내가 네 날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말씀나누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은혜나누기

1.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니까?
2.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기도하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범사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가정에배를 마칩니다.

오늘의 메시지

선지자 이사야는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집을 정리하라고 통보합니다(1절). 히스기야는 이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고(2~3절), 하나님께서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시며 병을 고쳐 주십니다(6~7절).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첫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부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꿔 응답하십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도 히스기야에 대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합니다(18:3). 분명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의 중심을 아셨기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진정성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앗수르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6절).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간절해질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함으로 자신의 기도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할 것입니다. 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1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오십오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 2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 4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 5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 6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 7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 8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 9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내용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방인보다 더 심한 악행

열왕기하 21:1~9

내용관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세에 왕이 돼 55년간 유다를 다스리며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성전에 일월성신의 제단들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사술을 행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많이 했기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므낫세는 이런 악한 행위로 백성을 이끌었고, 백성 또한 여호와 말씀 듣지 않았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로 민족보다 더 심했다.

연구와 묵상

1. 므낫세가 이토록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 어려서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상 앞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볼 때 악한 영에 휩싸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욱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지켜 행했어야 함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데 눈이 멀어 이처럼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이스라엘 백성이 므낫세의 꺾을 받아 이방인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성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의 불순종은 어리석음과 악행으로 이어졌고, 왕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핍박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므낫세의 꺾을로 인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지 않아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느낀 점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음에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왕이었던 것을 볼 때, 믿음의 가정에서 이뤄지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나 역시 신앙 교육에 있어 자녀들 앞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다.

또한 말씀보다 스마트폰에,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제는 내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생각으로 강력히 통제되길 소망하며,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겠다.

결단과 적용

1. 가정예배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하고, 가정과 학교,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2. 나부터 아침 7시에 기도와 쿠티로 하루를 시작하며, 올바른 신앙의 세대 계승을 위해 아이들과 쿠티 나눔의 시간을 갖겠다.

- 최성실 집사

내용관찰

1.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4~7a절)
2.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7b~8절)

연구와 묵상

3.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가 초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므낫세와 백성이 악행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므낫세는 유다 왕국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각종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를 거침없이 행합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4~5절). 백성도 므낫세를 따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참조 대하 6:16). 하지만 므낫세와 백성은 눈앞의 우상을 섬기느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역사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참조 대하 33:10~11). 현실의 유혹에 이끌린 므낫세의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고, 자손들이 누려야 할 위대한 복을 박탈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골방기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가까이하게 하소서.

- 10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 13 내가 사마리아를 켜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엮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 14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 15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 16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 17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18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1. 므낫세와 유다 백성의 범죄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12절)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판단하실 때 사용할 상징적 도구는 무엇입니까?(13절)

연구와 묵상

3. 하나님께서 재는 줄과 다림추를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그릇을 씻어 엽음같이 빨리 버려야 할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므낫세와 유다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각한 재앙을 내리기로 하십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건축물과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낱알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줄과 추는 건물이 수직과 수평을 맞춰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 도구입니다(13a절). 만약 수직과 수평이 잘못됐다면 무너뜨리고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건물이 무너져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줄과 추로 잴 때 유다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악으로 지어진 잘못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엮어 놓는 것처럼 유다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13b절). 건축된 집의 완성도와 안정성은 줄과 추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어 볼 때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죄에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골방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과 추로 삼아 늘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살게 하소서.

- 19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므술레멧이요 옷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 20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 21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 22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라
- 23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 24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 25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26 아몬이 옷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용관찰

1.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몬의 삶과 신앙은 어떠했습니까?(20~22절)
2. 아몬은 어떤 최후를 맞습니까?(23절)

연구와 묵상

3. 아몬의 악을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여러 번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낀 점

4. 아몬이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과 악한 삶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가족의 시선으로 볼 때 바르지 않은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신앙과 삶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 오늘 어떤 점을 고치겠습니까?

아몬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몬의 잘못된 신앙과 악한 삶을 말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를 언급합니다.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아버지가 행한 모습 그대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20~22절). 결국 아몬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이후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23절). 사실 사람은 선한 길을 가기는 어려워도 악을 행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은 이미 죄로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몬은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과 악한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닮아 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첫 모델이며 가장 중요한 모델이기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바른 믿음과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모습은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꿔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보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골방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1

세상이 우리를 압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가 교회 내부에 침투해 하나님 나라 백성 본연의 모습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압도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를 통해 세상 문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아하스가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며, 디글랏 빌레셀은 어떻게 반응합니까?(7~9절)
2.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간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것은 무엇이며, 아하스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10~11절)
3.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과 동일한 제단을 유다 땅에 짓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이방신의 제단과 동일한 제단을 쌓는 행위를 어떻게 여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4. 아하스가 늦 제단을 여호와께 여쭙 일에만 사용하겠다고 한 결정은 무엇을 뜻합니까?(15절) 앓수르라는 강대국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아하스를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5. 세상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6.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이를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일을 해결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익을 기본으로 한 결정들이 교회를 흔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모든 일을 말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2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

마음의 문을 열며

중독은 국가와 인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골치 아픈 현상이며, 사회적으로도 예방책을 강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실 중독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권유와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대수롭지 않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택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만 멈추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을 따라 쉽게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의 문제가 되는 이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권유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중독에 빠져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6~8절)
2.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세우고 불의를 행하게 된 과정을 어떤 수식어를 사용해 설명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 무엇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9a, 13절)
3.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악한 왕의 죄를 '따라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2절)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하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5. 영향력 있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무심코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6. 백성이 마을과 집에 세운 작은 신상들처럼, 내 일상 속에 습관처럼 침투한 작은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이 기계적으로 휩쓸려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나 주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이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묵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부터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겠습니다.

3

세상의 유혹과 위협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의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은 왜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랍사게를 통해 세상이 성도들을 어떤 말로 위협하고 유혹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어떻게 평가했고, 앗수르는 유다가 어느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나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20~21, 24절)
2.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며, 유다가 앗수르의 침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22, 25절)
3.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무력함을 부각시킨 이유와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게 하셨다는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의 신앙을 인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랍사게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33~35절)
5.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력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시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눠 봅시다.
6.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느껴지는 무력감이 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신앙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무력감입니다. “너 혼자 열심히 신앙을 지켜봐야 소용없다, 네 신앙을 지키기에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다” 등의 메시지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타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네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등의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본문은 약 2천 7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승전보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

은혜와 형통을 체험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큰 재산을 쌓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힘을 부여받은 삼손이나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한 사울 왕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인에게 진실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은 무엇이며, 이런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1~11절)
2.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자들에게 무엇을 보여 줬으며,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까?(13, 17~18절)
3.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모든 보물고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19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체험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에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내게 체험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물, 건강, 지위 등을 내 것으로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6.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받은 은혜 때문에 교만해져 있다면 이에서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겸손히 주님과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노라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세상의 공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야를 내 삶에만 제한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바랍니다.